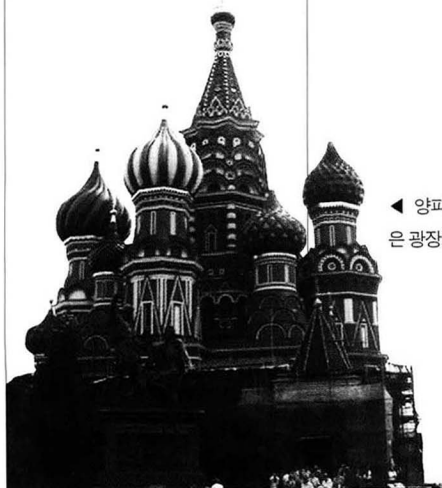


Russia publishing news

▶ 아르바뜨 거리 부근에서 만난 서적 노점상. 대부분 하드커버로 단단하게 제본되어 있는 책들이 러시아 출판문화의 저력을 말해주는 듯하다.



◀ 양파 모양의 지붕이 인상적인 붉은 광장 남단의 바실리성당.

최옥선 | 신구대 출판정보미디어과 겸임교수

아직까지 한국 출판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바 없는 러시아출판계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다. 출판학 교수를 비롯 출판연구자들의 모임인 범우출판포럼에서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러시아 출판계를 방문, 모스크바화상출판대학에서 '2004 한국-러시아출판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출판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교류를 모색했다. 그 외에도 러시아정부 출판언론성의 출판국장, 서점협회대표와의 면담을 비롯, '베체' 출판사, 중앙도서수집센터, 북 서평지 <출판비평> 등을 방문하고, 러시아국립도서관(구레닌도서관) 오리엔탈센터 한국관, 책박물관 및 러시아의 전국적인 대형서점망인 돔크니기와 모스크바서점을 둘러보는 등 러시아출판계의 제작, 유통, 정책, 홍보, 교육 등 전 분야에 대한 교류와 정보수집을 하고 돌아왔다. 범우포럼측은 이번 교류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국내 출판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개방 후 옹들임하는 러시아출판계

민영출판사들 경쟁 치열, 복디자인 다양해져



"세계에서 책 가장 많이 읽던 국민 저력 보여준다." 모스크바에 사는 안나 할머니는 청력을 잃어버려 보청기를 착용해 말을 알아듣는 처지이지만 2.3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 그녀의 방

은 수천 권의 책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침대 밑까지 각종 잡지들로 가득하다. 일레나와 예부게니는 노동자부부다. 일레나는 소설책을 붙들고 있느라 제때에 남편 밥상을 차려주지 않아 가끔 큰소리를 듣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녁 침대 머리맡에서 아까 읽던 책을 다시 뒤적이다. 안나 할머니나 예부게니부부나 러시아에선 지식인층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도 아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치 않은 그들이지만 푸쉬킨의 단편이나 네크라소프의 시들, 음유시인 브이스츠키의 노랫말을 탐닉하곤 한다. 러시아의 지하철을 타는 외국인들은 두 번 놀라게 된다. 냉전시대 방공호 구실을 겸해 만들어져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대리석으로 치장된 호화로움에 감탄하게 되며 일단 지하철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는 장면에 다시 놀라게 된다.

러시아는 한 해에 8만여 종, 7억2,000만 부의 책을 발간하여 미국, 영국, 중국 등에 이은 출판강대국이자 그 책이 독자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다. 소련시대에는 5만여 종을 발행했는데 지금은 8만여 종으로 권수보다 종수가 많아졌다. 인구 1인당 한 해에 4.5권 정도를 사보고 있는 셈이다.

현재 등록된 출판사 수는 2만여 곳. 그 중에 책을 꾸준히 내

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7,000여 곳. 구소련시절 202개 출판사였던 것에 비하면 수십 배가 늘어난 양상이다. 이 중 70퍼센트 정도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도시에서 전체 출판 발행부수의 93퍼센트가 발행되고 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출판산업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비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출판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1992년 이후에 탄생한 민간출판사들. 국영은 몇 곳만 남아 백과사전이나 교과서 등을 출판하고 있다. 민간출판사들 중에서도 우수도서는 국가지원금을 받아 안정적인 기획, 판매망을 확보할 수도 있다.



책값은 1권당 평균 2.2달러 정도. 우리가 만난 출판업자들은 한결같이 구소련의 유산으로 남은 '싼 책값'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어도 3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책은 우리같이 출고 시에 가격이 정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서점에서 원가의 30~70퍼센트의 마진을 붙여 자유가격제로 판매하고 있다. 말하자면 같은 책을 서점에 따라 다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초판은 평균 8,600여 부 정도를 찍는다.

현재 러시아에서 무슨 책을 어떤 내용으로 출판하든 검열이란 전혀 없다. 민영화 이후 모든 것이 시장경쟁에 맡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크렘린 출입기자로서 4년 동안 '내가 겪은 푸틴'이라는 부제를 붙여 푸틴의 개인적인 면모를 비난한 폭로비화 <한 크렘린 탐구자의 이야기들>이라든가 푸틴의 KGB 동료가 쓴 또 다른 비화 <동료> 등이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폭로성 출판물에서도 서방국가 못지않은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 모스크바서점이 조사한 올해 상반기 각 분야별 판매현황(전년도 대비)을 보면 예술 12.4퍼센트(12.8퍼센트)이 가장 많으며, 외국문학 10.5퍼센트(9.0퍼센트), 어학 9.0퍼센트(8.7퍼센트), 경제·경영 7.2퍼센트(8.0퍼센트), 러시아문학 6.5퍼센트(6.0퍼센트), 아동 6.0퍼센트(6.5퍼센트) 등의 순으로 팔리고 있다. '해리포터' 등 서방세계의 히트작들이 대부분 소개되고 파울로 코엘류의 경우는 《11분》, 《피에트라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연금술사》, 《악마와 미스프랭》 등 무려 5권이나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었다.

또한 최근 들어 러시아에 일고 있는 영어 배우기 붐과 함께 어학, 건강 등 실용서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미국, 일본, 한국 등과의 차이점이라면 예술, 문학시장이 그래도 강건하게 버텨가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책의 판매, 홍보, 좀더 나가 인터넷출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형서점들에서도 인터넷판매를 시도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

다. 제작에서도 CD-Rom 출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판매에서 재미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e-book 출판에 관심을 보이며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이런 신물결과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서 독서열기가 조금씩 수그러든다는 고민도 함께 안고 있다.

출판대학을 통한 고급인력의 확보



러시아 출판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출판인력 조달에 대한 산학협동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개방 이후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난 러시아 출판계는 늘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 텍

스트 위주의 책에서 표지 장식 등 디자인적 요소를 중요시하기 시작한 시장 분위기가 출판디자인, 출판인쇄 분야 인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인력수요를 공급하고 있는 학교가 모스크바 화상출판대학(Moscow State University of Printing Arts)이다. 이 대학은 5년제 과정으로 출판과 관련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출판 기획, 출판디자인, 출판법제, 광고, 인쇄기기, 인쇄재료, 화학, 디지털인쇄학, 그 외에도 출판마케팅, 출판회계, 출판경영 등 편집제작에서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출판의 전 과정을 이해시키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전공분야를 익히게 한다. 74년의 역사 깊은 학교로 특히 이 대학의 출판디자인 교육은 러시아의 수준높은 예술책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학교 내에 독일의 하이델부르크 등 유명 회사가 들어와 산학협동을 하고 있고 자체 내 인쇄소, 출판사 등에서 교재, 참고서, 미니책, 잡지, e-book 등을 제작해 내고 있다. 1년에 400종을 발간하고 있다니 한국의 웬만한 대형 출판사 수준이다. 현재 이 대학은 한국의 중부대학교와도 학생교류를 하고 있어 이곳에서 출판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학생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이 학교의 출판디자인과에서는 태생 등 기초회화를 철저히 가르치고 있으며 판화, 컴퓨터그래픽 등 커리큘럼이 단단하게 짜여져 있다. 책의 예술성을 중요시하는데 우리의 책 디자인 개념과는 다소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 학교의 알렉산드르 찌가넨코총장은 10대 1의 높은 입학 경쟁률에 이 학교 출신은 업계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는다고 자랑했다.

"구 소련시절에는 러시아 출판 시장에서 디자인 인력 수요가 3.5퍼센트 수준이었는데 개방후 35.3퍼센트 정도로 늘어났다. 그만큼 책의 디자인적 요소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다. 그 중에 우리가 상당 부분을 키워내보내고 있다." 출판이라는 것이 인력 주도의 산업이라는 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출판이 얼마나 그 뿌리를 단단히 하고 있는지 느끼게 한다. **한민**